

##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Bring Whom I Created for My Glory

이사야 Isaiah 43:1-7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But now thus says the Lord, he who created you, O Jacob, he who formed you, O Israel.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2.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whelm you. When you walk through fire you shall not be burned, and the flame shall not consume you.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I give Egypt as your ransom, Cush and Seba in exchange for you.

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Because you are precious in my eyes, and honored, and I love you. I give men in return for you, peoples in exchange for your life.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Fear not, for I am with you. I will bring your offspring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I will gather you.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일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I will say to the north, Give up, and to the south, Do not withhold. Bring my sons from afar and my daughters from the end of the earth.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지난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중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행”(Immanuel)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waters)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fire)입니다. 다니엘(Daniel)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불에 던져 넣던 자들이 불에 타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에 넣으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 불 속에서 셋이 아니라 넷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하고 He answered and said, “But I see four men unbound,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appearance of the fourth is like a son of the gods.  
다니엘 Daniel 3:25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Fear not, for I am with you.  
이사야 Isaiah 43:5a

이 말씀은 유명한 시편 23편의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시편 Psalm 23:4a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그 때가 두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2022년을 지나왔을까요? 세계정세(world politics)도 그렇고, 경제(economy)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Russia)가 미사일을 쏘는 전쟁의 포화 속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북한(North Korea)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모든 사람들을 강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2022년을 무사히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적(miracles)은 선교지(mission sites)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지난 주일에 후파(Hoopa) 지미(Jimmie)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은 것을 증거 했습니다. 왜 유독 선교지에서만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간절하고, 구하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마가복음 Mark 11:24

오늘 우리는 2023년 신년기도(New Year Prayer Requests)를 작성합니다. 열 가지 기도문을 써서 내일 주일예배 때 교회에 제출합니다. 현장예배가 가능하지 않으면 교회로 편지(mails)를 보내주시시오.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간증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이사야(Isaiah)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유다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들은 웃시야(Uzziah)로부터 히스기야(Hezekiah)까지 모두 네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그들의 문제는 “불신”(faithlessness)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온통 “두려움”(fear)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메시지는 그 핵심이 “신뢰”(trust)이며, “shalom 평강”(shalom peace)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shalom 평강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 배경(background)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과 불에서 구원해주신 그 크신 은총(the grace)을 기억(remember)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love)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salvation)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Creator)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Father)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As a father shows compassion to his children, so the Lord shows compassion to those who fear him.

시편 Psalm 103:13

1.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큰 사랑을 받으나 그 사랑을 믿지(not to believe the love)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난 2022년 고난 중에, 돌아보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난 모든 날들 동안,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2.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신실한 약속이 있으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not to believe the covenant) 사람입니다.

이제 2023년으로 건너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이사야 Isaiah 43:1b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주시는 증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To him the gatekeeper opens.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요한복음 John 10:3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마태복음 Matthew 7:23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지명하여라는 것은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다, 하심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3. 성도 여러분. 불쌍한 자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not to trust in).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동행. 임마누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I have faith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Amen.

사도행전 Acts 27:25b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 동행의 축복으로 살아온 어제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내일이 되는 축복이 되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